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湖南新聞

새콤달콤 '보성참다래' 본격 출하

보성군은 새콤달콤 맛있는 친환경 보성참다래를 본격적으로 출하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비교적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작보다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해 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는 고품질의 참다래를 맛볼 수 있다. 보성참다래는 350여 농가가 300ha 면적에 연간 4천3백여 톤을 생산해 전남의 47%, 전국 20%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참다래 300톤을 일본에 수출할 예정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보성물, G마켓, 농협연합사업단 등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농가는 재값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친환경 참다래 인기
전남의 47% · 전국의 20% 생산량 차지



상품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 및 법인·단체에 11억원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단지 기반 조성, 농산물 운반기, 비가림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다래는 오렌지의 3배, 사과와 5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여 노화 방지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A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 피로회복과 감기예방에 매우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대장 안에 독소를 제거하며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참다래 1개에 들어있는 엽산은 10.6mg으로 임신부 일일 엽산 섭취 권장량인 0.4mg보다 많은 양으로 산모의 빈혈을 예방하고 기형아 출산을 막으며 태아의 뼈 형성에 필요한 미네랄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다.

영광대마산단 투자기업 조기착공 독려

김명원 부군수, 초소형전기차 생산 (주)캡시스 등 2개사 방문

영광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대마산단 투자기업의 조기 착공을 독려하기 위해 (주)캡시스 (인천광역시 소재)와 (주)티에스비 (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했다. (주)캡시스가 대마산단에 제조공장을 짓게 되면 호남 최초의 전기자동차 공장이 영광에 들어서게 되어 e-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김명원 영광부군수는 "이번에 방문한 기업들이 조기에 착공해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방문은 영광군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 중의 한 방편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입소문 '장성 노란꽃잔치' 이번 주말 절정

볼거리 많은 꽃강 축제 전 국민이 주목



"이번 주말, 황룡강 노란꽃을 즐길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볼거리 많은 축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이하 '노란꽃잔치')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한 '노란꽃잔치'는 25일 기준으로 7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수를 넘어서 수치로 축제가 끝나는 29일 까지 100만명을 가뭇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축제 규모와 내용을 대폭 늘린 '노란꽃잔치'는 황룡강변 곳곳에 광활하게 조성된 꽃 정원과 수준 높은 먹거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알차게 꾸며져 연일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 중이다. 관람객들이 '최고'라고 입을 모으는 대표 볼거리는 10억 송이의 황룡코스모스와 백일홍으로 꾸며진 꽃정원이다. 색색의 꽃들이 황룡강을 따라 3.5km 길이를 조성해

있어 '한국에서 가장 긴 꽃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게 '동물체험', '수상 꽃 자전거', '엘로우 전동차'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만원짜리 쿠폰을 구매하면 할인권 6매와 시식권 1매, 경품 응모권 1매를 주는 '웰컴 혜택 드림'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올해는 황룡강변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황룡 강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를 연출해 밤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이번 주말 대표적 볼거리는 28일 저녁 6시 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슈퍼스타 Y 결선'이다. '슈퍼스타 Y'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 예능경연대회로, 축제기간에 150여팀이 참여해 8차례의 예선을 거쳐 24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심사위원에는 오드아이 뮤직 기획사 이사과 유명 프로듀서가 포함되어 있어, 뛰어난 재능을 보인 참가팀은 연계를 진출의 가능성도 얻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람객 대부분이 강변을 수놓은 황룡코스모스와 백일홍이 빛어낸 장관에 감탄하고 있다"며 "이번 가을 꽃놀이를 농민들은 반드시 장성 황룡강으로 오셔서 마지막 절정을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이 주최한 '노란꽃잔치'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성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한 건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관람객들을 맞아 유종의미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 학교면 지역복지 사업 우수사례 발표

전남복지 나눔제안대회서 바람직한 민간협력복지로 호평

함평군 학교면은 지난 25일 (제)전남복지재단 주관으로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전남복지 나눔제안대회'에서 지역특화사업을 발표했다. '지역복지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혁신으로'를 주제로 열린 나눔제안대회엔 전라남도과 시군 사회복지관계자,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 등 14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나눔사업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함평군 학교면이 시행하고 있는 나눔지역 특화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가 진행됐다. 학교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남희)와 함께 '학교면 하나 래복지지킴이단'을 운영하며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생활품을 편하게 기부하고 가져갈 수 있는 '기부물품 나눔창구', 관내 음식점이나 병의원, 마트, 약국 등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매일 일정액을 후원하거나 쌀 생활용품, 농산물 등을 기부하는 '사랑 나눔 실천업소' 등 특색 있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277가구를 발굴해, 긴급구호비 지급 등 847건의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정된 국가예산보다 많은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평=김광춘 기자

맛있는 감! 즐길 준비 됐는가?

구례군, 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섬진강 예감축제' 개최

구례군은 오는 28일 구례읍 유곡마을 입구 강변공원에서 '섬진강 예감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 섬진강변 일대 농가들의 주요 농산물인 '감'을 주제로 주민과 도시민들이 함께하는 추억의 가을

운동회와 감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귀농귀촌한 마을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풀어내는 문화공연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홍보관 등 섬진강 다목적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선정 탑푸르트(Top Fruit) 대상을 받은 등 뛰어난 품질과 명성을 자랑한다. 구례군은 1,300여 농가에서 연간 5,200톤 생산되는 감 소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의 예감축제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감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례 5일 시

장에 감 직거래장터를 개설했다. '구례 감 직거래장터'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기간 중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구례장날에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 단풍을 찾는 관람객들이 '섬진강변 예감축제'와 '구례 감 직거래장터'에 오셔서 맛 좋고 품질 좋은 구례 감도 맛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부추채본부장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